

“한국어 명사와 동사 결합 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김진해

경희대

jinhae@khu.ac.kr

이 논문은 '명사 + 동사'의 연어관계에 변화를 보이는 구성에 대한 설명 기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관 쓰다', '말씀 주다', '추억 돈다', '가성비 착하다'류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어관계를 다룰 때 우리는 선택된 단어의 예측 불가능성 또는 자의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어관계를 이루는 두 어휘요소 간에 결합이 절대적인 자의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동기 부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기 부여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뿐입니다.

의미변화에 대한 설명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데, 유사한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면 의미는 변화/확장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낱말하고 반복적인 공기관계를 이루는 연어관계 속의 단어들은 자의적이지 않고 해당 단어의 의미 확장의 결과이거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기관계 또는 연어관계를 이루는 어휘에 어떤 동기가 부여되었는지를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처럼 새로운 연어관계의 형성 기제를 밝히려는 시도는 좀 더 다양하게 계속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위 질문을 드립니다.

1. 연어관계의 변화 원인과 개별 구성의 관련성

'3장 연어관계의 변화 원인'에서 '유추'(조은영 2010), '환유'(장경현 2011), '유개념을 종개념으로 교체'(황용주 2006) 등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후의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 질문에 대한 각 사례별 보충 설명입니다.

▶ '상관 쓰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상관을 하면 신경을 쓰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를 함께 나타내려는 의도라는 설명은, 조은영(2010)의 설명처럼 $[N1+V1, N2+V2] \rightarrow [N1+V2]$ 로 해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결과로 원인을 대신하는 환유로 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은 새로운 연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N1(+V1)$ 구성을, 동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N2+)V2$ 구성을 상정해야 합니다.

(1) ㄱ. 빈정 상하다 = 빈정₁[+거러다₁] - [따음₂] 상하다₂

ㄴ. 상관 쓰다 = 상관₁[+하다₁] - [신경₂] 쓰다₂

ㄷ. 긴장 타다 = 긴장₁[+하다₁] - [속₂]타다₂

이렇게 되면 새로운 N+V 구성은 기존의 구(phrases, 또는 연어구성) 두 개가 축약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전에 합성어를 문장의 통사적 변형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말씀 주다'에 대한 설명에서 이 구성이 '말씀 드리다'(드리다-주다)와의 관계와 '말씀 받다'(받다-주다)의 관계 중에서 어떤 쪽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인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추억 돌다'에 대해, 장경현(2011)처럼 이중주어문에서 '소름'이 생략된 것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돌다'의 의미가 '기대 이상의 놀람'의 의미가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동사의 의미 변화로 선행 명사의 결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가성비가 착하다'도 마찬가지). 이것은 앞의 언어관계의 변화 원리와 어떻게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을지요.

논의를 다양화하기 위해 의견을 덧붙여 본다면, 저는 이들 예들도 동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구체 → 추상'이라는 의미 확장의 방향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달리 보면,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가 애초 추상성, 또는 서술성(동작성, 상태성)을 가졌는데, 새로운 동사들(쓰다, 돌다, 타다, 주다 등)과 결합하기 위해 사물화/대상화(objectification) 정도가 강화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술성 명사 '상관, 긴장, 말씀, 추억' 등이 물건처럼 쓸 수 있는 대상(사물)으로 변경된다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기존의 '추억에 잠기다'에 쓰인 '추억'도 기억을 공간(그릇, container)으로 개념화(은유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억이 돌다'도 은유화의 일종인데 다른 영역으로의 은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

- 예 (13): "'상관하지 마'보다 '상관쓰지 마'가 덜 서운하게 들린다"는 해석의 근거가 있는지요.

- 결론에 "'말씀 주다'는 '말씀 드리다'의 객체높임법 어휘 '드리다'를 '주다'의 상대높임법 어휘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언급에 대한 설명 필요해 보입니다.